

SERI 경제 포커스

2009. 12. 8. (271)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가능성 점검

목차

FOCUS	1
1.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2. '고용 없는 회복'의 3가지 요인	
3.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5
경제일지	16
경제통계	19

작 성: 손민중 연구원
(serisohn@seri.org)
02-3780-8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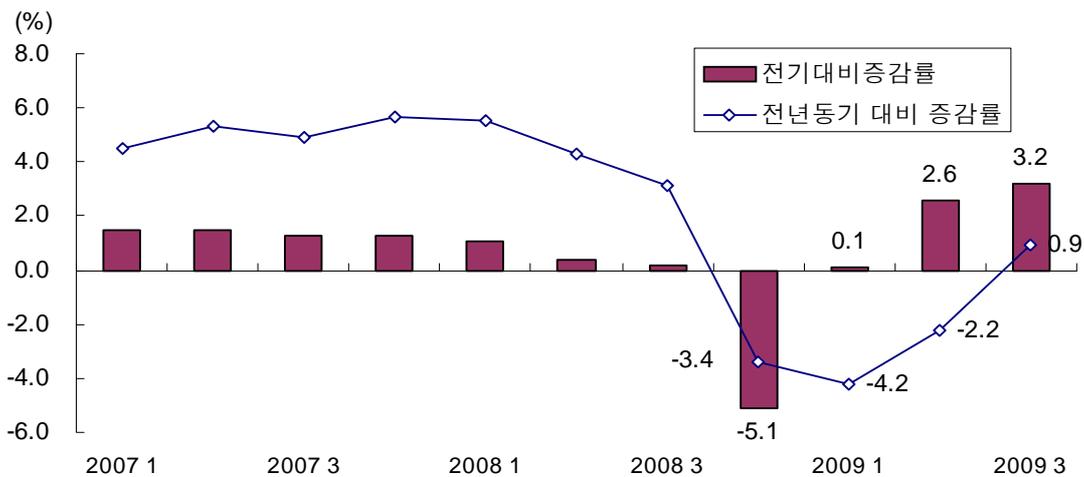
1.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상황은 부진

□ 현재 한국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과 재고조정 효과 등에 의해서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

- 2009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9%(전기 대비 3.2%)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¹⁾
- 현재 OECD에서는 한국을 수출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들 중 하나로 판단²⁾

최근 실질 GDP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과 전기 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부문의 지표가 10월까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실물경기의 회복세를 실현
 - 2009년 9~10월³⁾ 광공업 생산과 소비재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5.5%와 8.2%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양호한 모습

¹⁾ 전기 대비 성장률인 3.2% 중 재고의 성장기여도가 2.8%p로 기업의 재고확대가 경제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²⁾ OECD (2009). OECD Economic Outlook. Source OECD Stat.

³⁾ 2008년과 2009년의 추석명절이 각각 9월과 10월에 다르게 있어 조업일수와 명절효과의 영향을 감안하여 9~10월 수치를 평균하여 계산

- 2009년 9~10월 설비투자도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1년 만에 플러스 증가세로 반전

□ 한편, 노동시장은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10월 일자리 창출 폭이 전년 동기 대비 0.9만 개에 그치는 등 경기회복세에 비해 미미

- 2009년 들어 일자리 창출 폭이 5월(21.9만 개가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미흡한 상황⁴⁾
- 1% 경제성장으로 유발되는 일자리가 2005~2007년 중 전년 대비 5.6~7.7만 개 수준⁵⁾
- 또한, 2009년 10월 공공부문 일자리가 33.2만 개 창출되는 등 최근 창출되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에 집중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만 개)

구분	2009년	2010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민간부문	-1.8	-10.6	-17.1	-26.4	-25.9	-30.8	-26.4	-39.4	-31.8	-25.5	-32.3
공공부문	0.6	0.3	2.9	6.9	7.2	8.9	26.8	31.9	32.1	32.6	33.2

주: 공공부문 일자리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취업자로 한정

자료: 통계청, KOSIS DB.

- 한편,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⁶⁾도 2009년 10월 15.4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3.0만 명 확대되면서 최근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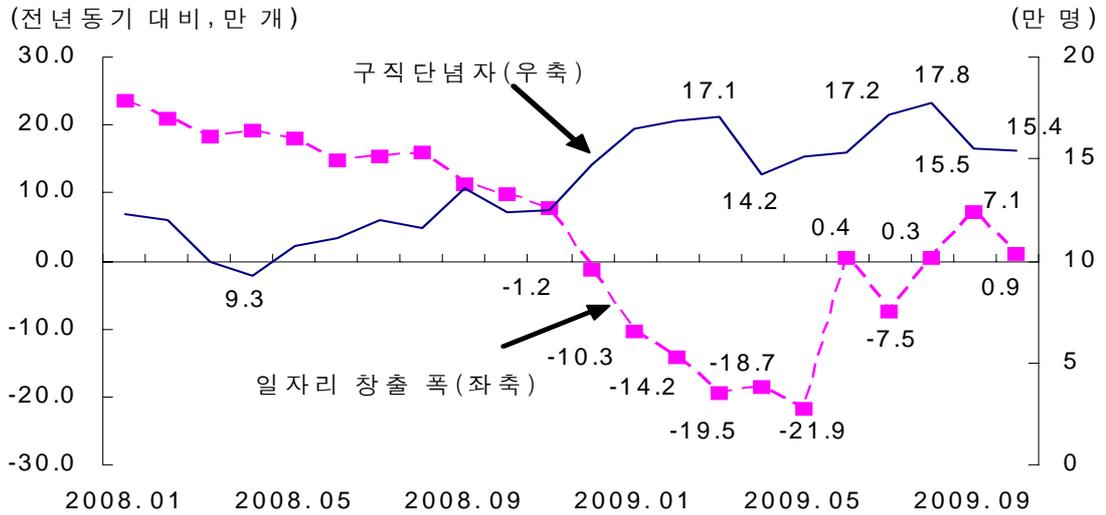
⁴⁾ 2009년 9월에는 7.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2008년 11월(7.7만 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택배수요 등 추석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⁵⁾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현재까지는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 한편, 2005년 실질 GDP 기준 1% 경제성장에 의해 유발되는 피용자는 9.1만 명에 달해 최근의 일자리 창출 폭이 경기회복세에 비해 부진함을 방증 (한국은행 (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⁶⁾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실망실업자의 제한적인 정의 (통계청 (2009년). "2009년 10월 고용동향.")

- 이는 최근까지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

최근 일자리 창출 폭과 구직단념자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DB.

최근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가 대두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사정의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가 대두

- 2010년 경기회복기에 '고용 없는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⁷⁾과 내수 위주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
- 이는 2010년 한국경제 성장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⁸⁾

⁷⁾ 2010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어 공공부문의 고용증가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창출력이 제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부진에 의한 가계소비 위축규모는 연간 8조 2,466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명목 GDP의 0.8% 규모 (현대경제연구원 (2009). "2010 한국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

⁸⁾ 최근 '고용 없는 회복'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 (Knock, E. S. II & Terry, S. (2009). How will unemployment fare following the recession? FRB.)

- 본 보고서는 '고용 없는 회복'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노동시장의 모습을 예상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 없는 회복'의 이유를 '일자리 나누기' 도입 확산의 역작용, '공공부문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의 한계', '노동생산성 제고로 인한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 등으로 제시
- 전술한 특징을 분석한 후 향후 전망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

2. '고용 없는 회복'의 3가지 요인

'일자리 나누기' 도입 확산의 역작용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강기에 기업들은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 가동률, 노동시간, 임금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고용조정 압력을 흡수
- 2009년 4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00인 이상 6,781개 사업장 중 23% 수준인 1,544개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참여
-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위한 2009년의 기존 예산(653억 원)에 5,283억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추가로 편성하여 기업을 지원⁹⁾

2009년 일자리 나누기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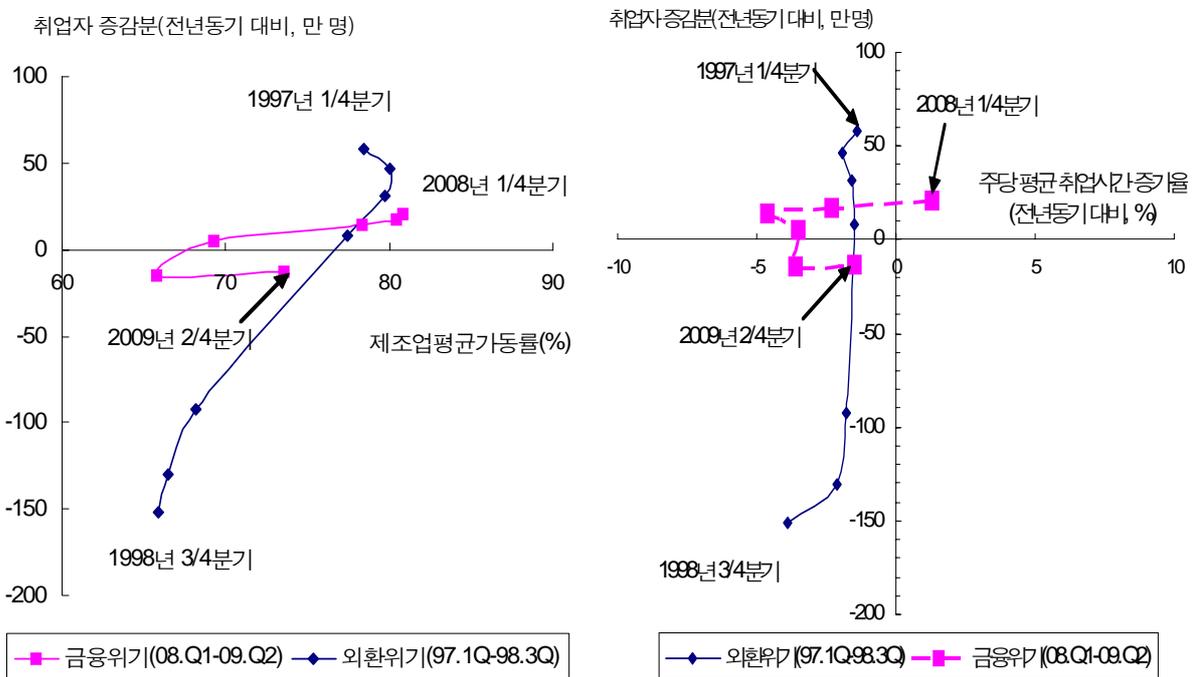
참여업체 수	'일자리 나누기' 제도 도입의 방법		
	복합형 (근무형태 및 임금 조정)	근무형태 조정	임금 조정
1,554	243	553	1,234

- 주: 1) 2009년 4월 9일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 수(6,781개 소) 대상
- 2) 참여업체 1,554개 중 1,244개 기업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300개 기업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제도를 도입
- 3) 근무형태 조정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금조정에는 임금동결, 임금반납, 임금절감 등의 방법이 있음
-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창출분야 작업반 (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일자리 창출분야-."

⁹⁾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창출분야 작업반 (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창출분야 -."

- 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확산으로 기업들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가동률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강세에 대응
- 외환위기 때 취업자 감소 폭 최대치는 -151.4만 명('98 3/4분기)이었던 반면, 최근의 취업자 감소 폭 최대치는 -19.1만 명('09 1/4분기)에 불과
-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가율 조정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정 폭이 외환위기 시기의 수준을 상회

경기하강기의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주: 외환위기 시의 경기수축기는 제6순환기(1996년 2/4분기~1998년 3/4분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근의 금융위기 시의 경기수축기와 유사한 기간으로 조정하여 단축, 1997년 1/4분기부터 1998년 3/4분기로 간주.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기동행지수 움직임을 감안하여 2008년 1/4분기~2009년 2/4분기로 간주하고 분석

자료: 통계청, KOSIS DB.

- 한편, 최근 임금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을 조정한 상황을 반영
- 임금총액과 실질임금은 2008년 4/4분기와 2008년 3/4분기부터 각각 4분기 연속과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세를 지속

최근 월평균 임금총액 수준과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단위: 만 원,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08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임금총액	266.2 (6.1)	256.3 (6.3)	267.2 (2.6)	266.1 (-2.1)	261.2 (-1.9)	252.4 (-1.6)	264.1 (-1.2)
실질임금	247.9 (2.2)	233.9 (1.5)	240.5 (-2.7)	240.2 (-6.4)	234.1 (-5.6)	223.9 (-4.3)	233.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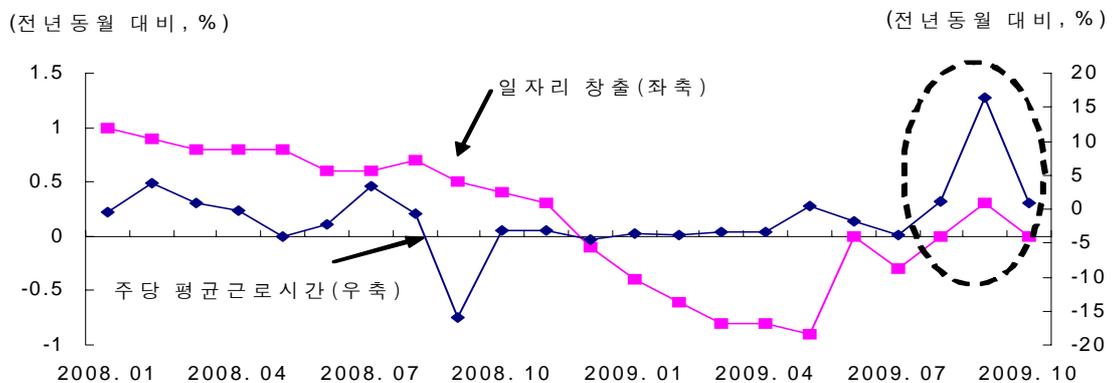
주: 비농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근로자 1인 기준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각 호.

□ 경기하강세에 대응하여 고용조정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나누기' 제도가 향후 경기회복기에 고용개선의 폭을 제한

- 일자리 나누기 제도는 불황기 노동비용의 감소시키기 위해 일자리를 조정하는 대신 노동시간, 가동률, 그리고 임금조정을 실행한다는 의미
 - 이는 경기회복 속도와 폭에 비해 일자리 회복속도와 폭이 느리고 완만할 것이라는 중요한 근거이며, '고용 없는 회복'의 가능성도 높이는 요인
-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경기상승세에도 고용확대를 가능한 늦추면서 초과근무 등으로 대응할 전망
 - 최근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하는 모습

일자리 창출 폭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 증감률



자료: 통계청, KOSIS DB.

- * 주당 평균근로시간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3.8('09 7월)→ 1.1(8월)→ 16.3(9월)→ 0.9(10월)
- * 일자리 창출 폭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0.3('09 7월)→ 0.0(8월)→ 0.3(9월)→ 0.0(10월)

공공부문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의 한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발생한 실업자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흡수된 모습

- 외환위기 당시의 경기순환기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축소된 분야는 제조업과 건설업이고, 크게 확대된 부문은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
 - 외환위기를 전후로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각각 48.5만 개와 27.3만 개가 축소
 - 반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 각각 20.0만 개와 15.9만 개가 확대
 - * 이는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실업자의 상당수가 자영업 부문에서 흡수된 상황을 반영하는 수치¹⁰⁾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경기침체에 취약부문에서 발생한 상당의 실업자가 공공부문에서 흡수된 것으로 판단¹¹⁾
 - 이번 위기 상황에서는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각각 18.7만 개와 15.6만 개의 일자리가 축소

¹⁰⁾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1999년 실직자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소상공인 지원용자,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등)이 시행되면서 1999~2002년 중 고용주와 자영업 형태의 취업자가 3년 동안 각각 21.3만 명과 20.7만 명 확대. (손민중 (2008). "최근 고용부진의 세 가지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205호). 삼성경제연구소.)

¹¹⁾ 구조적으로 경기침체에 발생한 실업자가 경기회복기에 회복을 주도하는 산업부문으로 재배치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때문임. 그러므로 민간부문에서 자생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산업에 노동력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데 이는 신규노동력이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고 노동시장 안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는 최근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과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각각 36.0만 개와 26.0만 개씩 일자리가 크게 확대
- *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실업자의 상당수가 정부정책의 수혜를 입어 공공부문으로 흡수됨을 반영하는 수치

주요 업종별 일자리 창출 폭 증감 비교

(단위: 만 개)

구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금융 및 보험	공공행정 국방사회 보장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국제 및 외국기관
외환위기	-48.5	-27.3	15.9	20.0	-1.2	8.6	14.0	12.5	0.2
금융위기	-12.5	-18.7	-10.9	-15.6	-6.9	36.0	7.9	26.0	-0.4

주: 1) 외환위기 시의 경기침체기는 1996년 3월부터 1998년 8월까지이고, 경기회복기는 1998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임(제6순환기의 경기하강기와 제7순환기의 경기상승기를 지칭)
 2)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경기침체기는 통계청 경기순환국면의 확인이 안 되어서 경기침체기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로, 경기회복기는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로 간주
 3) 일자리 변화는 경기 정점과 저점일 때의 일자리 규모의 차이를 계산하여 두 수치를 합하여 도출
 자료: 통계청, KOSIS DB.

- 최근의 경기회복기에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더더질 전망
- 외환위기 직후의 실업자는 자영업 형태로 흡수되었으나 이번 위기에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당수 실업자가 공공부문에 흡수된 모습
- 자영업 부문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일자리 유지의 여부가 판명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재정에 의존하여 한시적인 일자리가 상당수
- 그러므로 향후 2010년에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이 축소된다면 노동시장은 '고용 없는 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
- 2009년 하반기부터 실행되어 25만 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향후 사업규모의 축소가 불가피¹²⁾

¹²⁾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2010년 연간기준 55만 개(2009년 본예산 기준 40만 개)로 확대되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2010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되 대상 인원은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이기로 발표 (기획재정부 (2009) "2010년 예산안 편성방향.")

노동생산성 제고로 인한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¹³⁾

□ 최근 한국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¹⁴⁾는 지속적으로 하락, 노동생산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고용창출 능력도 하락세를 지속

- 전 산업 취업계수는 2007년 기준으로 10억 원당 8.2명을 기록하여 2000년 수치(10.9명)와 비교하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
-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2007년 3.0명에 불과한데, 경기상승세에도 일자리 창출이 큰 폭으로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주요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 10억 원, %)

구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률		
					'00~'05	'05~'06	'06~'07
전 산업	10.9	8.7	8.4	8.2	-4.4	-3.4	-2.4
제조업	4.4	3.4	3.2	3.0	-5.0	-5.9	-6.3
건설업	10.1	10.5	11.1	10.7	0.8	5.7	-3.6
서비스업	15.9	13.1	12.9	12.8	-3.8	-1.5	-0.8

자료: 한국은행 (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 이러한 고용창출 능력의 하락은 노동생산성이 제고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 2006~2007년 중 취업자는 산출액 요인으로는 6.3% 상승한 반면, 노동생산성 요인으로 2.4% 하락
- 특히, 동 기간 중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이 1.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노동생산성의 기여도가 -3.4%를 기록한 것이 원인¹⁵⁾

¹³⁾ 버냉키 FRB 의장은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노동생산성의 빠른 증가를 제시 (Bernanke B. (2003). The Jobless Recovery, The Global Economic and Investment Outlook Conference, November 6. Pennsylvania: University, Pittsburgh).

¹⁴⁾ 취업계수는 취업자 수(명)를 산출액(10억 원)으로 나눈 개념으로 산출액 10억 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로 노동생산성의 역수 개념이고,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한국은행 (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¹⁵⁾ 건설업 노동생산성 상승은 건물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장비이용률과 낮은 노동투입률을 나타내는 토목건설이 공공부문 예산의 조기집행과 행정·혁신 도시의 착공으로 증가하고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택건축의 경우 노동투입이 낮은 초기공사 비중이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요인(기여도 기준)

(단위: %)

구분	취업자 증감률			노동생산성 요인			산출액 요인		
	'00~'05	'05~'06	'06~'07	'00~'05	'05~'06	'06~'07	'00~'05	'05~'06	'06~'07
전 산업	5.5	2.6	4.0	-20.2	-5.2	-2.4	25.8	7.8	6.3
제조업	3.9	1.2	1.8	-23.6	-6.2	-4.9	27.5	7.4	6.6
건설업	26.2	5.8	1.4	3.5	5.7	-3.4	22.8	0.1	4.8
서비스업	9.0	3.3	6.2	-17.5	-2.1	-0.5	26.5	5.4	6.7

자료: 한국은행 (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 한편, 제조업 부문의 고용계수는 미국과 일본 수준을 하회, 고용창출력이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을 반영

주요국의 취업계수

(단위: 명/100만 달러)

구분	한국(2007년)	미국(2006년)	일본(2007년)	독일(2007)
전 산업	8.6	6.3	6.2	6.2
제조업	3.2	3.9	3.4	3.7
서비스업	13.7	7.0	7.6	7.8

자료: 한국은행 (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경기회복세를 수출부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면 고용창출은 향후에도 미흡할 전망

- 2009년 1/4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회복은 상대적으로 수출(순수출) 부문이 주도하는 모습
- 동년 3/4분기 국내총생산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0.9%를 기록했지만 순수출의 기여도가 5.3%p에 달하는 등 수출 부문의 회복세가 주요인

2009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전년동기 대비, %p)

구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국내총생산	-4.2	-2.2	0.9
내수	-8.7	-7.6	-4.4
순수출	4.1	5.3	5.3

주: 내수는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2009). "2009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 향후 수출주도형 경기회복세가 실현될 경우 경기회복세에 비해 고용회복세는 회복속도가 상당히 더디질 것으로 예상
- 최종수요 10억 원당 취업유발인원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수출 취업유발계수 하락 폭이 소비 및 투자보다 빠르게 하락

취업유발계수 하락률(2000년 대비 2007년 수치)

(단위: %)

항목	소비	투자	수출
취업유발계수 하락률	-20.1	-12.7	-38.6

자료: 한국은행 (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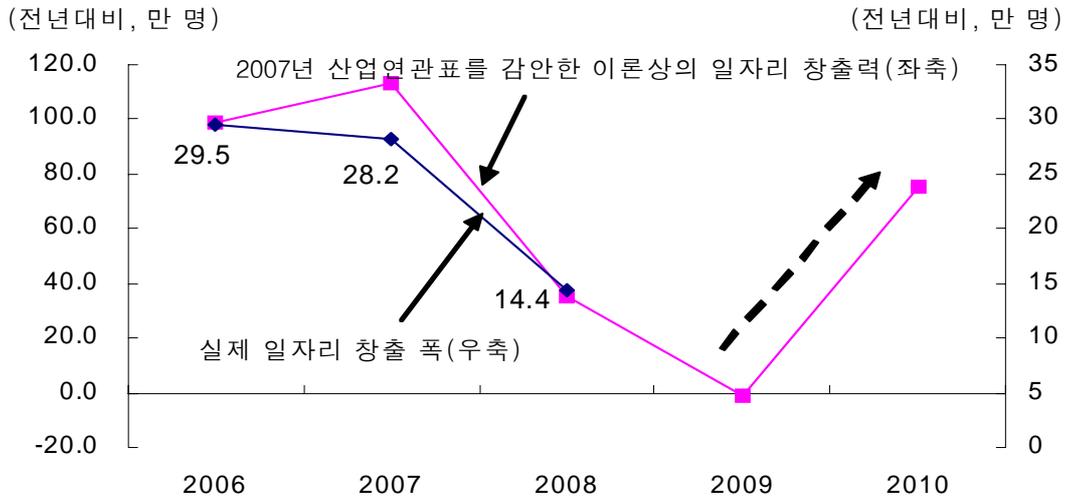
- 이는 수출부문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세가 노동시장의 개선 폭을 제한한다는 의미

3.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회복에도 향후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

- 201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4.3%가 전망되면서 노동시장도 2009년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전망
- 2007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론적인 일자리 창출력은 2006년과 2007년 수준을 하회하고, 2008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
- 이는 부문별 삼성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치와 2007년 산업연관표를 감안한 수치이며, 최근 흐름이 대체로 실제 일자리 창출 폭과 유사
- 2010년 일자리 창출이 2008년 수준(14.4만 개)를 상회하고 2006~2007년 수준(28.2~29.5만 개)를 하회할 것이라는 의미

산업연관표를 감안한 이론상의 일자리 창출력 흐름과 실제 일자리 창출 폭



주: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순수출 등 각 부문별 성장률은 삼성경제연구소 전망치를 감안하여 계산

□ 하지만 2009년의 '일자리 나누기' 도입의 확산, 공공부문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제고 등의 특징은 고용회복을 제한

- 기업들은 향후 강한 경기회복을 확인하지 않는 한 수요확대에 대해 상당 기간 기존직원의 임금인상과 초과근무로 대응할 가능성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수를 조정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무시간, 그리고 가동률의 조정으로 대응
- 또한 최근 공공부문에서 위기 이후 발생한 실업자를 흡수하면서 재정투입이 감소될 경우 이 부문의 일자리 창출 폭은 축소될 전망
- 노동생산성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향후 경기상승세는 상당부문 수출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와 고용의 분리현상도 발생할 가능성
- 이에 따라 2010년의 일자리 창출 폭은 기대수준을 하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칠 전망

서비스업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고용을 동반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력 회복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일자리 나누기'제도의 확산과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위기 시에 단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제도
 - 장기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제도를 실시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핵심인력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조정을 경험할 수 있어 이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¹⁶⁾
 -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대부분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하지 못하는 단기 일자리일 가능성
 - 현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제조업 부문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으로 판단
 - 현재 서비스업 고용구조는 양적인 측면의 과소고용 문제와 질적인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라는 문제에 직면
- 향후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동시 다발적인 대책보다는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
 -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규제완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기혼여성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에 파생되는 보육 및 가사 서비스의 수요진작이 필요
 - 2008년 현재 25~54세 여성 중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OECD 평균수치(70.2%)를 하회
 - 한국 노동시장의 파트타임 비중도 2008년 현재 9.3%로 OECD 평균(15.5%)의 60% 수준이며, 여성은 13.2%로 OECD 평균(25.3%)의 절반

¹⁶⁾ 손민중 외 (2009), "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금융업의 경우 규제완화와 M&A를 통한 대형화 촉진 등이 필요

-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전직희망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를 유인하는 적합한 대책을 모색
- 이 부문은 최근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 이탈된 인력들의 자활사업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以上>

: 3

	11.30	12.1	12.2	12.3	12.4
회사채(AA-)	5.21	5.16	5.24	5.23	5.27
회사채(BBB-)	11.36	11.31	11.38	11.37	11.41
국고채(3년물)	4.10	4.05	4.13	4.12	4.16
콜금리	2.02	2.03	1.98	2.03	2.02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리는 원화 대비 약세, 엔화, 유로화 대비 강세

	11.30	12.1	12.2	12.3	12.4
원/달러	1162.8	1161.1	1154.0	1155.3	1153.0
엔/달러	86.37	86.66	87.46	88.22	90.44
달러/유로	1.5009	1.5088	1.5046	1.5070	1.4851
원/100엔	1346.38	1339.83	1319.54	1309.64	1274.88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두바이 발 금융 불안 진정 및 외국인 순매수 전환으로 상승

구 분		11.30	12.1	12.2	12.3	12.4
거래소	KOSPI(p)	1555.60	1569.72	1591.63	1615.00	1627.76
	거래량(만주)	30,819	30,252	32,808	27,732	28,034
	시가총액(조원)	819	826	837	850	855
	외국인순매수(억원)	1,271	307	3,768	935	2,345
코스닥지수(p)		464.32	469.04	475.97	480.52	483.63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12. 07 ~ 12. 11)

12. 07. (월)

- 국내 보도자료: 2009년 11월 채권시장 동향 (한국거래소)
- 해외 보도자료: 일본, 10월 경상수지 (재무성)

12. 08. (화)

- 국내 보도자료: 2009년 11월 펀드시장 동향 (금융투자협회)
- 해외 보도자료: 일본, 10월 경기동행지수 (내각부)
일본, 10월 경기선행지수 (내각부)

12. 09. (수)

- 해외 보도자료: 일본, 2009년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각부)

12. 10. (목)

- 국내 보도자료: 2009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2009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한국은행)
2009년 11월 생산자물가 동향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10월 상품·서비스수지 (상무부)
일본, 11월 기업물가 (일본은행)
일본, 10월 민간기계수주 (내각부)

12. 11. (금)

- 국내 보도자료: 2010년 경제전망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11월 소매판매 (상무부)
일본, 11월 소비자태도지수 (내각부)

(11. 30 ~ 12. 4)

<p>11. 30.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시카고 11월 구매관리자지수 전월대비 1.9p 상승한 56.1, 공급관리협회
<p>12. 1.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1월 제조업지수 전월대비 2.1p 하락한 53.6, 공급관리협회
<p>12. 2.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0월 기준주택 판매지수 전월대비 4.1p 상승한 114.1,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p>12. 3.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1월 비농업부문 고용 전월대비 1만1천명 감소, 노동부
<p>12. 4.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0월 공장주문 전월대비 0.6% 상승, 상무부

<p>11. 30.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지역: 11월 경기신뢰지수 전월대비 2.7p 상승한 88.8, 유럽집행위원회
<p>12. 1.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지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Eurostat
<p>12. 2.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지역: 10월 민간대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ECB
<p>12. 3.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지역: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전월대비 0.5p 상승한 51.2, Markit Economics
<p>12. 4.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27: 10월 실업률 전월대비 0.1%p 상승한 9.3%, Eurostat

<p>11. 30.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0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2% 하락, 내각부
<p>12. 1.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0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5% 증가, 경제산업성
<p>12. 2.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3/4분기 실제 GDP와 잠재 GDP차이인 수급갭 -6.7%로 추산, 내각부
<p>12. 3.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0월 현금급여총액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1인당 26만8,036엔, 후생노동성
<p>12. 4.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0월 신규주택착공 전년동월대비 27.1% 감소한 6만7,120채, 국토교통성

<p>11. 30.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10월 소매판매 228억 3,000만 홍콩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 통계청
<p>12. 1.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외환 보유액 165억 달러로 추산되어 수입액 기준의 2.5개월 치로 급감, IMF
<p>12. 2.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6.5%로 동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p>12. 3.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성장 회복 국면으로 2010년 8~9%대 성장 전망, 세계은행
<p>12. 4.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인플레이션 2010년 2월까지 가속화될 전망, 재무부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4	4.6	43.3	6.1	3.6	3.7	9.5	4.6	6.1	4.7	0.06	0.04	895.9
2005	4.0	46.9	2.1	2.8	3.7	8.1	6.9	7.0	4.7	0.04	0.03	1,379.4
2006	5.2	47.6	0.9	2.2	3.5	5.7	8.3	7.9	5.2	0.02	0.02	1,434.5
2007	5.1	49.4	1.4	2.5	3.2	6.6	11.2	10.2	5.7	0.02	0.01	1,897.1
2008	2.2	43.8	8.6	4.7	3.2	0.6	14.3	11.9	7.0	0.03	0.02	1,124.5
2008.11			7.8	4.5	3.1		14.0	11.4	8.56	0.03	0.02	1,076.1
12	-3.4	38.5	5.6	4.1	3.3		13.1	10.4	8.35	0.04	0.03	1,124.5
2009. 1			4.7	3.7	3.6	-6.2	12.0	9.2	7.34	0.04	0.03	1,162.1
2			4.4	4.1	3.9		11.4	8.8	7.07	0.04	0.03	1,063.0
3	-4.2	41.5	3.5	3.9	4.0		11.1	8.4	6.14	0.05	0.02	1,206.3
4			1.5	3.6	3.8	-2.5	10.6	7.7	5.68	0.03	0.02	1,369.4
5			-1.3	2.7	3.8		9.9	7.3	5.16	0.04	0.03	1,395.9
6	-2.2	48.9	-3.1	2.0	3.9		9.6	7.0	5.21	0.02	0.01	1,390.1
7			-3.8	1.6	3.7	-2.0	9.7	7.7	5.46	0.02	0.01	1,557.3
8			-3.0	2.2	3.7		10.0	8.0	5.74	0.02	0.01	1,591.9
9	0.9	52.6	-2.6	2.2	3.4		10.0	7.7	5.58	0.02	0.01	1,673.1
10			-3.1	2.0	3.2	5.60	0.02	0.01	1,580.7
11			..	2.4	5.43	1,555.6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 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4	95.8	100.3	1.1	-4.8	5.3	6.3	-3.9	80.1	10.8	54.7	10.1	13.6
2005	100.0	99.4	4.2	3.0	7.9	-2.8	7.3	79.7	6.3	28.9	7.5	8.6
2006	105.2	99.9	4.0	3.4	7.9	17.4	9.0	80.0	8.7	55.7	7.6	6.8
2007	111.9	100.6	5.1	0.8	8.5	20.6	23.6	80.1	7.1	19.8	6.1	8.8
2008	113.1	99.3	1.0	0.5	2.2	-12.8	-9.0	77.2	3.0	5.1	-3.4	24.8
2008. 10	112.7	99.2	-3.4	-2.0	-0.8	-46.4	-23.7	77.3	-2.3	-17.1	-0.7	36.1
11	111.3	97.3	-4.7	-0.4	3.3	-52.6	-39.3	68.4	-14.5	-34.3	-17.2	29.7
12	110.4	94.6	-4.5	-11.9	-5.5	-42.8	30.7	62.3	-20.0	-47.8	-29.0	36.7
2009. 1	110.7	92.4	-3.3	8.7	10.1	-47.4	-15.0	61.4	-27.0	-39.7	-50.0	12.8
2	111.9	92.0	-6.1	-5.2	-19.2	-26.2	-20.7	66.9	-10.4	-24.3	-19.2	33.8
3	113.0	92.5	-5.2	0.4	-5.2	-23.7	-14.7	69.2	-11.1	-21.4	-26.5	36.1
4	115.0	93.5	-3.9	0.9	-4.2	-24.9	-8.0	71.5	-8.8	-12.6	-24.4	17.3
5	117.4	93.8	1.6	4.6	0.2	-21.3	-18.5	72.9	-9.6	-13.4	-22.5	15.8
6	120.5	95.4	7.5	2.7	-4.8	2.1	17.9	76.6	-1.4	1.8	-11.7	21.6
7	122.2	96.2	1.8	3.3	-5.3	7.3	2.9	78.7	0.8	13.2	20.8	16.9
8	123.4	96.7	1.9	7.1	-2.2	-15.7	-29.5	77.7	1.0	20.9	-2.6	12.1
9	124.4	96.9	6.6	8.8	-2.0	31.9	58.4	80.3	11.4	23.4	34.9	30.2
10	125.7	96.9	9.8	12.0	5.6	3.0	27.2	77.3	0.3	36.3	-14.3	-5.9

주: 반도체는 2006년 7월로 통계청 DB내 '반도체 및 기타 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4	28,174	37,569	-8,046	1,083	7,599	4,588	6,599	199,066	1,043.8	1,012.07	1,723	1,167
2005	14,981	32,683	-13,658	-1,563	4,757	2,010	-3,518	210,391	1,013.0	859.90	1,879	1,292
2006	5,385	27,905	-18,961	534	17,972	-4,540	-23,230	238,956	929.6	781.83	2,601	1,208
2007	5,876	28,168	-19,768	1,003	7,128	-13,836	-26,058	262,224	938.2	833.33	3,832	374
2008	-6,406	5,994	-16,734	5,107	-50,933	-10,595	-15,368	201,223	1,257.5	1,393.89	3,811	-326
2008. 11	1,907	845	-130	720	-12,141	-214	-3,140	200,506	1,482.7	1,553.79		
12	861	1,496	-1,517	576	-4,829	-195	-1,012	201,223	1,257.5	1,393.89	3,779	-301
2009. 1	-1,636	-1,737	-709	564	5,139	-55	5,679	201,741	1,368.5	1,520.98		
2	3,564	3,107	-529	485	-2,977	-546	161	201,535	1,516.4	1,541.14		
3	6,649	6,979	-646	-216	-2,711	-594	-2,308	206,340	1,377.1	1,414.80	3,652	-194
4	4,247	6,132	-1,109	-856	2,161	80	7,133	212,478	1,348.0	1,382.92		
5	3,496	4,882	-1,467	358	7,023	-260	4,264	226,766	1,272.9	1,314.10		
6	5,431	6,612	-1,445	678	-291	219	5,344	231,735	1,284.7	1,336.28	3,786	-643
7	4,359	6,126	-1,894	482	2,385	-1,139	7,940	237,510	1,240.5	1,299.16		
8	1,912	3,332	-1,791	587	5,461	-111	4,064	245,459	1,244.9	1,332.80		
9	4,034	5,278	-1,630	548	7,205	-235	7,911	254,247	1,188.7	1,318.80	3,975	299
10	4,945	5,722	-1,127	541	1,543	-282	6,13	264,187	1,200.6	1,312.63		
11	270,892	1,167.4	1,348.27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4	3.6	2.5	2.7	5.5	8,075	14,771	-6,250	2.25	10,783.0
2005	2.9	3.3	3.4	5.1	8,946	16,818	-7,290	4.25	10,717.5
2006	2.8	2.2	3.2	4.6	10,231	18,614	-7,881	5.25	12,463.2
2007	2.0	1.7	2.9	4.6	11,485	19,679	-7,312	4.25	13,264.8
2008	1.1	-1.7	3.8	5.8	12,914	21,122	-6,733	0.25	8,776.4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¹⁾	소비자물가 ²⁾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³⁾	주가(기말) ⁴⁾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4	2.7	5.6	0.0	4.7	6,117	4,922	1,019	0	11,489
2005	1.9	1.1	-0.3	4.4	6,566	5,695	1,195	0	16,111
2006	2.4	4.6	0.3	4.1	7,525	6,734	8,71	0.25	17,226
2007	2.1	2.9	0.0	3.9	8,393	7,314	7,90	0.50	15,308
2008	-0.6	-3.2	1.4	4.0	8,105	7,889	1,080	0.10	8,860

주: 1) 광공업생산, 2) 전년동기비, 3) overnight call, 4) Nikkei 225

[유로지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2.1	2.3	2.1	9.0	11,197	10,553	580	2.00	2,951.2
2005	1.7	4.1	2.2	9.0	12,091	12,041	138	2.25	3,578.9
2006	2.9	5.1	2.2	8.3	13,521	13,715	0	3.50	4,119.9
2007	2.6	2.8	2.1	7.5	15,059	14,900	306	4.00	4,399.7
2008	0.8	1.7	3.3	7.6	15,617	15,929	-686	2.5	2,447.6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3)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1.2	4.2	1.7	10.6	7,261	5,714	1,029	1.98	4,256.1
2005	0.8	3.0	1.6	11.7	7,835	6,259	1,147	2.32	5,408.3
2006	3.0	5.3	1.6	10.8	8,941	7,322	1,509	3.48	6,596.9
2007	2.5	5.8	2.3	9.0	9,707	7,717	1,913	3.66	8,067.3
2008	1.3	0.6	2.6	7.8	9,902	8,135	1,649	0.86	4,810.2

주: 1) 전년동기대비, 2)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3)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4	2.8	0.9	1.3	4.8	1,909	2,518	-252	4.75	4,814.3
2005	2.1	-1.5	2.0	4.8	2,116	2,801	-327	4.50	5,618.8
2006	2.8	0.6	2.3	5.4	2,436	3,199	-450	5.00	6,220.8
2007	3.0	0.5	2.3	5.4	2,208	3,106	-403	5.50	6,456.9
2008	0.7	-2.8	3.6	5.6	2,510	3,439	-245	2.00	4,392.7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란은행 RP 금리, 3) FTSE 100지수(1984.1.3=1,000)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2.5	2.1	2.1	9.3	3,385	3,441	95	2.04	3,821.2
2005	1.9	0.2	1.7	9.3	3,554	3,790	-111	2.36	4,715.2
2006	2.4	1.0	1.7	9.2	3,884	4,177	-99	3.43	5,541.8
2007	2.1	1.5	1.5	8.4	4,031	4,431	-198	3.76	5,614.1
2008	0.7	-2.3	2.8	7.8	4,120	4,654	-391	1.66	3,218.0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국채수익률, 3)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4	10.1	16.7	3.9	4.2	5,934	5,614	320	5.58	1,266.50
2005	10.4	16.4	1.8	4.2	7,620	6,601	1,019	5.58	1,161.06
2006	11.1	16.6	1.5	4.1	9,691	7,916	1,775	6.12	2,675.47
2007	13.0	18.5	4.8	4.0	12,180	9,558	2,627	7.47	5,261.56
2008	9.0	12.9	5.9	4.2	14,285	11,331	2,955	5.31	1820.8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4	6.2	9.3	1.6	4.4	1,824	1,688	136	1.75	6,139.69
2005	4.2	3.8	2.3	4.1	1,984	1,826	158	2.25	6,548.34
2006	4.8	4.7	0.6	3.9	2,240	2,027	213	2.75	7,823.70
2007	5.7	7.8	1.8	3.9	2,467	2,193	274	3.38	8,506.28
2008	0.1	-2.0	3.5	4.1	2,557	2,408	148	2.00	4591.22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